



# 설악산 산행기

글 | 2병동 이복연 간호사

산행지가 설악산이라는 소리를 듣고 여고 시절 수학여행이 생각났습니다. 신나고 즐겁고 때론 친구와 나름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며 고교시절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던 그 곳에 꼭 다시한 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설악산 대청봉 산행이라는 엄청난 과제에 평소 운동이 라고는 안하던 사람이 어딜 가냐고 못 올지도 모른다는 남편의 갖은 협박에 몇 번의 망설임은 있었지만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설레임과 걱정으로 밤새 뒤척이다 막상 출발하고 보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강릉까지의 여정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잠시의 지루함 없이 다들 신명나게 묻지 마 관광버스를 만들어 그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관광일정으로 짜여진 첫날 좋은 날씨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으로 즐겁게 다녔습니다.

모래시계 촬영지로 잘 알려진 정동진은 푸르다 못해 검은 빛깔이었고 시원한 바닷바람은 마음을 탁 트이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모래시계 앞에서 한 컷 찍었죠.

울곡 선생님의 생가 오죽헌도 둘러보고 무엇보다 큰 산불로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되어 안타까웠던 낙산사를 다니면서 참 많이도 얘기했고 많이도 웃었고 계속 공급되는 먹거리로 많이도 먹었습니다. 재잘재잘 깔깔



필자 : 사진의 오른쪽에서 두번째



깔 무엇이 그리 재미가 있는지 다들 웃음과 여유가 넘치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산행 초보지들에 대한 배려로 A, B 산행코스를 나누어 갈 수 있어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정말 대단한 A팀은 아침 일찍 우리의 본래 목적인 대청봉을 향하였고 산보를 택한 현명한 우리의 B팀은 느긋한 아침 식사를 하고 흘림골을 출발했습니다.

가을 단풍을 즐기기에는 조금 늦은 시기였으나 역시 설악은 아름다운 산이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단풍들과 어우러진 곳곳마다의 절경에 탄성이 절로 나왔고 그 웅장함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정상에서 만난 세찬 바람에는 고개가 숙여졌으며 몸조차 가누기 힘들었지만 그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단합이 잘 된 B팀은 늘 함께 다녔고 늘 같이 나눠 먹으며 같이 웃고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산보가 아닌 산행이 되어 힘이 들기도 했지만 함께한 이들과 또 다른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갔습니다.

대단한 A팀도 한 사람의 낙오자와 사고 없이 모두 산행을 마쳤고 각자의 코스가 최고였다며 한바탕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룻밤을 함께 보내었기에 어느 때보다 진한 정을 느꼈던 산행이었고 그 모든 걸 계획하고 이끌어주신 산우회 임원단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